평생 잊지못할 감동이 있는 골프장!!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예약 : www.hpdynasty.co.kr 080)320-7700

기성용 광주FC 홍보대사 맡는다

〈광주시민프로축구단〉

오늘 시청서 위촉식·팬 사인회…시민주 1000만원 기탁

'2010 남아공 월드컵'에서 활약한 축구선수 기성용이 광주시민프로축구단(광주FC)의 홍보대사를 맡는다. 기성용은 8일 광주시청을 방문해 위촉식에 참석하고, 이 자리에서 시민주 1000만원(2000주)를 기탁할 예정이다.

지난 1989년 광주에서 태어난 기 선수는 금호고를 졸업한 뒤 FC서울을 거쳐 현재 대한민국 축구국가대표팀과 스코틀랜드의 셀틱FC에서 미드필더로 활동중이다.

기성용은 이날 광주지역 초등학교 축구 감독과 주장을 시청으로 초청해 축구공과 격려금을 전달하고, 위촉식이 끝난 뒤 모교인 금호고를 찾아 후배들을 격려할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는 시민주 공모를 홍보하기 위해 시청 1층 민원실에서 방문 민원인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기성용 선수 팬 사인회를 열기로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기성용 선수가 광주시민프로축구단 홍보대사를 맡아 오는 20일까지 계속되는 시민주 공모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강운태 시장은 이날 홍보대사 위촉 전달식에 참석해 국가대표 축구선수로 2010남아공월드컵에 출전해 광주와 대한민국을 전세계에 빛낸 데 대해 광주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과 감사의 말을 전할 예정이다. /윤현석기자 chadol@

'포스트' 허정무 국내파로 뽑는다

대한축구협 기술위 K리그 전현직 감독 후보군에

한국축구를 사상 첫 원정 월드컵 16강에 올려놓은 허정무 대표팀 감독의 후임은 K-리그 사령탑을 지냈거나 지휘봉을 잡고 있는 국내 지도자 가운데 배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한축구협회는 7일 오후 축구회관에서 차기 대표팀 감독 선임과 관련한 기술위원회를 열었다.

1시간40분가량 이어진 회의에서 기술위원들은 차기 사령탑으로 국내 지도자를 뽑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회택 기술위원장은 "12~13명의 전·현직 K-리그 감독을 후보에 올렸다"고 밝혔다.

기술위원회는 현재 계약관계 등을 살펴봐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일단 현직 K-리그 감독도 후보로 올려놓았다.

현재 K-리그 지휘봉을 잡은 사령탑 중에서는 최강희 전북 현대 감독과 조광래 경남FC 감독, 김호곤 울산 현대 감독 등을 후보로 꼽을 만하다.

최강희 감독은 지난해 전북을 이끌고 정규리그 1위와 통합챔피언에 오르며 K-리그 최우수감독상을 수상했다. 조광래 감독은 선수 발굴 및 육성 능력에서는 단연 국내지도자 중 톱 클래스다. 올해도 무명의 선수들로 전반기 경남FC의 돌풍을 이끌었다.

김호곤 감독은 2004년 아테네 올림픽 대표팀 감독으로 사상 첫 8강 진출을 이뤘고, 1986년 멕시코 월드컵 대표팀 코치 등 지도자 경력도 풍부하다.

최강희 감독의 소속 구단과 계약기간은 2012년 말까지이고, 조광래·김호곤 감독은 올해 말까지다.

구단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전직 K-리그 감독 중에서는 감학범 전 성남 감독이 대표 후보다.

성남과 계약을 1년이나 남겨두고 2008년 11월 스스로 지휘봉을 내려놓고 나서 브라질, 잉글랜드 등으로 축구 유학을 다닌 김 전 감독은 K-리그에서도 대표적인 공부하는 지도자다. 장외룡 전 인천 유나이티드 감독도 후보가 될 만하다.

한편 기술위원회는 대표팀 감독 후보에서 제외달라고 요청한 정해성 현 대표팀 코치의 내부 승격도 배제하지 않았다. 정 코치는 6일 조중연 협회장 등에게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다. 스페인에서 축구 유학을 하며 더 많이 공부하고 재충전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자신의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기술위원회에서는 "직접 보고 받은 사항이 아니다"며 정 코치를 여전히 후보로 봤다. /연합뉴스

7일 새벽 3시 30분(한국시간) 케이프타운 그린포인트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0 남아공월드컵 우루과이와의 8강전에서 네덜란드의 로벤이 팀의 세 번째 골을 성공시킨 뒤 팔을 벌려 골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렌지 군단 "무패 우승 신화 보라"

월드컵 준결승 우루과이에 3대 2 승… 32년만에 결승 진출

'오렌지 군단' 네덜란드가 남미의 '복병' 우루과이를 제물 삼아 32년 만의 결승 진출 꿈을 이뤄 월드컵 출전 사상 첫 우승에 도전한다.

네덜란드는 7일 케이프타운의 그린포인트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준결승에서 히오바니 판브론크호르스트의 선제골과 베슬러이 스네이더르의 추가골, 아르연 로번의 쐐기골로 두 골을 만회한 우루과이의 거센 추격을 3-2로 뿌리쳤다.

이로써 네덜란드는 지난 1978년 아르헨티나 월드컵 이후 32년 만에 결승에 진출, 스페인-독일 4강 경기 승자와 오는 11일 우승컵을 다툰다.

특히 결승이 유럽팀 간 맞대결로 압축돼 유럽팀이 비유럽지역 월드컵에서 우승하지 못했던 징크스가 깨지게 됐다.

반면 자국에서 개최된 1930년 대회와 1950년 브라질 대회에서 우승했던 우루과이는 네덜란드의 벽에 막혀 60년 만의 결승 진출 길목에서 분루를 삼켰다. 8강에 네 팀을 진출시켰던 남미팀이 모두 탈락한 셈이다.

전반 18분, 네덜란드의 장 판브론크호르스트가 귀중한 선제골을 뽑아냈다. 왼쪽 페널티지역 외곽까지 침투한 판브론크호르스트가 패스를 받자 한 번 접은 뒤 왼발로 강하게 감아차 1호골을 터트렸다.

전반 41분 동점골이 터졌다. 우루과이의 '캡틴' 포를란은 아크 정면에서 상대 문전이 열리자 수비수를 살짝 제치고 왼발 강슛을 날려 골로 성공시켰다.

후반 25분 네덜란드의 스네이더르가 왼쪽 페널티지역에서 날린 오른발 슈팅이 수비수 발을 맞고 굴절되면서 골네트를 출렁였다. 스네이더르는 이번 대회 5골로 다비드 비야(스페인)와 득점 공동 1위로 올라섰다. 네덜란드는 3분 후 카위트가 왼쪽에서 크로스를 올려주자 로번이 골지역 정면에서 헤딩으로 공의 방향을 살짝 바꿔 세 번째 골을 만들어냈다.

우루과이는 추가시간 아크 정면 프리킥 찬스에서 패스를 받은 막시 페레이라가 왼발 슈팅으로 만회골을 뽑았으나 승부를 뒤집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 /연합뉴스

'점쟁이 문어'는 스페인 승리 점쳤는데…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에서 독일이 앞서 벌인 다섯 경기의 승패를 정확히 맞춘 독일의 '점쟁이 문어' 파울이 독일-스페인의 준결승전에서 스페인이 승리할 것으로 예언, 독일 축구팬들을 실망시켰다.

6일 독일 서부 오버하우젠 해양생물 박물관에 따르면 수족관의 파울은 독일과 스페인 국기가 각각 그려진 2개의 유리 상자 사이에서 잠시 머뭇거리다가 스페인 상자 쪽으로 가 뚜껑을 연 뒤 상자 안의 홍합을 삼켰다. 앞서 파울은 조별리그에서 독일이 호주와 가나에 승리하고, 세르비아에 패할 것임을 족집게처럼 맞췄으며 잉글랜드와 벌인 16강전과 아르헨티나와의 8강전 승리도 예측하면서 유명세를 타고 있다. 이 때문에 독일의 2개 뉴스전문 TV 방송은 7일 준결승전을 앞두고 이 행사를 생중계했다.

그러나 박물관 관계자들은 아직 희망이 있다고 주장했다.

파울이 2008년 유럽선수권대회에서도 한 경기만 빼고 독일의 승패를 모두 맞췄는데, 그 한 경기가 스페인과의 결승전이었다는 것이다. 당시 파울은 독일의 승리를 점쳤으나 스페인이 1대0으로 승리해 우승했었다.

관계자들은 문어가 색맹이기 때문에 흑-적-황의 독일 국기와 적-황-적의 스페인 국기를 구별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독일 국기는 3개 띠의 폭이 똑같지만 스페인 국기는 중간에 위치한 노란 띠의 폭이 위, 아래에 있는 붉은 띠의 2배이다. /연합뉴스

지역예선 포함 14경기 연승… 네덜란드 힘은?

화려함 접고 끈끈한 조직력·수비로 실리축구

"이제 토털 사커는 통하지 않는다." 7일(한국 시각) 케이프타운의 그린포인트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준결승에서 우루과이를 꺾고 32년 만에 결승에 진출한 네덜란드 축구는 '과거와의 결별'을 선언한 베르트 판마르베이크 감독의 이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다.

'전원 공격, 전원 수비'로 대표되는 '토털 사커'의 원조인 네덜란드는 전통적으로 화려한 공격력이 최대 강점이자 매력으로 꼽히던 팀이었다. 유럽 팀 중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 개인기와 '한 골 잃으면 두 골 넣어' 승리하는 화려한 공격력 덕에 '재미있는 축구'로 전 세계 축구팬의 사랑을 받았다.

하지만 이번 월드컵에서 판마르베르크 감독이 선보인 네덜란드 대표팀은 화려하지만 뒷심이 부족했던 과거 모습과는 천지차이다. 사령탑에 오르면서부터 '월드컵 우승을 목표로 이기는 축구를 추구하겠다'고 공언한 그는 월드컵 대표팀을 꾸리면서도 몸 상태가 좋지 않은 골잡이 뤼트 판 니스텔루이(34·SV 함부르크)를 과감히 최종 엔트리에서 제외하는 등 철저하게 조직력을 우선시했다. 또한 안정적인 경기운영을 위해 최후방 수비를 보강하고 미드필드진의 유기적인 플레이를 강조했으며 공격은 아르연 로번(바이에른 뮌헨) 등 저격수들에게 전담시켰다.

그 결과 공격진의 화려함은 덜하지만 끈끈한 조직력과 수비를 바탕으로 전방위에서 압박을 가하는 등 과거와 전혀 다른 팀으로 거듭났다.

이 때문에 팬들로부터 과거의 화려한 색채를 잃었다는 공격을 받기도 했지만 네덜란드의 '실리 축구'는 지역예선을 포함한 14경기 연승으로 32년 만에 결승 진출을 이루며 그 효과를 증명해냈다.

네덜란드의 '이기는 축구'가 결승전에서도 통한다면 사상 첫 우승 뿐 아니라 예선-본선 전승 우승이라는 대기록까지 세우게 된다. /연합뉴스

우루과이 남미축구 자존심 지켰다

수십년 축구 변방서 4강행 남아공 월드컵 최고팀 부상

브라질도 아르헨티나도 아니었다. 2010 남아공 월드컵에서 남미 축구의 자존심을 끝까지 지켜낸 팀은 인구 350만 명의 소국 우루과이였다.

우루과이는 7일(한국시간) 케이프타운의 그린포인트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준결승에서 2-3으로 네덜란드에 아깝게 패했지만 세계 축구팬들의 뇌리에 우루과이 축구의 힘을 뚜렷이 새겼다.

수십년간 '변방'에 머무르던 우루과이가 남아공 월드컵에서 남미팀 중 유일하게 4강까지 생존하리라 생각한 축구팬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30년 자국에서 개최된 월드컵 원년 대회와 1950년 브라질 대회에서 정상에 올랐던 우루과이는 현대 축구가 뿌리내리기 시작할 무렵 세계 축구계를 주름잡던 강호였지만 점차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 '남미의 맹주' 자리를 내주게 된다.

1970년 멕시코 월드컵 4강 이후로는 뚜렷한 성적을 올리지 못한 우루과이는 월드컵 지역예선에서도 줄줄이 고배를 마셨고 남아공 월드컵 지역예선에서도 5위에 그쳐 북중미 4위 코스타리카와 플레이오프를 거쳐 간신히 본선 진출권을 따냈다.

특히 예선 18경기에서 28골을 만들어낸 공격력에 비해 20골을 내준 취약한 수비력 때문에 본선 조별리그 A조에서도 탈락 후보로 꼽히곤 했다.

하지만 우루과이는 본선 무대에서는 180도 달라진 모습을 선보이며 남아공 월드컵 최고의 '신데렐라'로 떠올랐다. /연합뉴스